

소망과 의로의  
찬송과 말씀  
구원복음 선포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 목 차



## 〈소망과 위로의 찬송〉

|                             |   |
|-----------------------------|---|
|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217장) .....  | 3 |
|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219장) .....   | 3 |
| 구주 예수 의지함이(266장) .....      | 3 |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348장) .....    | 4 |
|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284장) .....  | 4 |
|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218장) .....    | 5 |
| 내 영혼이 은혜 입어(403장) .....     | 5 |
| 천국에서 만나보자(220장) .....       | 5 |
| 내 영혼의 그옥이 깊은 데서(379장) ..... | 6 |
| 내 주는 강한 성이요(300장) .....     | 6 |
| 마귀들과 싸울지라(304장) .....       | 6 |
| 만세 반석 열리니(138장) .....       | 7 |
| 예수님 사랑하심은(327장) .....       | 7 |
| 이 몸의 소망 무언가(442장) .....     | 7 |
| 저 높은 곳을 향하여(446장) .....     | 8 |
| 지금까지 지내 온 것(369장) .....     | 8 |
| 하늘 가는 밝은 길이(448장) .....     | 9 |
| 후일에 생명 그칠 때(221장) .....     | 9 |

## 〈소망과 위로의 말씀〉

|                                |    |
|--------------------------------|----|
| 시편 23편 .....                   | 10 |
| 요한복음 11장 21-44절 .....          | 10 |
| 고린도전서 15장 35-54절 .....         | 11 |
| 고린도후서 4장 17-18절, 5장 1-9절 ..... | 12 |
|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절 .....        | 13 |
| 요한계시록 22장 12-21절 .....         | 13 |

## 〈전도와 복음 설교〉

|                    |    |
|--------------------|----|
|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 14 |
|--------------------|----|

|                      |    |
|----------------------|----|
|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 ..... | 18 |
| 이 낡은 집 .....         | 30 |
| 다시 태어나야 한다 .....     | 45 |
| 다시 태어남의 진정한 의미 ..... | 56 |

##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을 제때에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자에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소망과 위로의 찬송 그리고 성경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소망과 위로를 주는 구원에 대한 복음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sup>1)</sup>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한 부류는 영원히 천국에, 다른 한 부류는 영원히 지옥에 간다고 창조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책자를 접하는 분께서 오늘 자신의 구원과 최종 종착지를 깊이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으면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신뢰하여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고후6:2)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히2:3)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요1:12-13).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시116:15).

---

1)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One More Night With the Frogs*), <이 낡은 집>(*This Ole House*)은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 설교자이신 휴 파일(Hugh F. Pyle, 1918-2010) 목사님의 설교문이다.

# 소망과 위로의 찬송



*Hymns for Hope and Consolation*

##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217장)

1.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2.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써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뵈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3. 앞서 간 친구들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 (후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뵈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219장)

1.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2. 광야에 찬 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3. 날 구원하신 주 모시고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 구주 예수 의지함이(266장)

1.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참된 약속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 (후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2.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주의 피에 적시네



3.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 버리네  
안식 얻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4. 구주 예수 의지하여 대속 구원 얻었네  
영원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348장)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시네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주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주님 인도하셨네



####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284장)

1.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218장)

1.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2.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3.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롭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4.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후렴) 며칠 후 며칠 후 요르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르단강 건너가 만나리

### 내 영혼이 은혜 입어(403장)

1. 내 영혼이 은혜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 천국에서 만나보자(220장)

1. 천국에서 만나 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결코 늦지 않도록
2. 너의 등불 밝게 켜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3.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후렴) 만나 보자 만나 보자 저기 보이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 보자 만나 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 내 영혼의 그옥이 깊은 데서(379장)

1. 내 영혼의 그옥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숨겨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3.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인도를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후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 내 주는 강한 성이요(300장)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왕국 영원하리라

### 마귀들과 싸울지라(304장)

1.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서 있는 곳에 곧 다가오리라
2.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흥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3.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후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만세 반석 열리니(138장)

1.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시네
2.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안식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주님 홀로 속하네
3.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 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주소서
4. 살아생전 숨 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 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 사랑하심은(327장)

1. 예수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왕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442장)

1.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2.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렘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3.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기에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앞에 서리라
- (후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446장)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다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2.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습니다
  4.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5.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기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 (후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웁니다

지금까지 지내 온 것(369장)

1.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낱도 멸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 하늘 가는 밝은 길이(448장)

1.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 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며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 많아도  
주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3. 내가 천국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설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라

#### 후일에 생명 그칠 때(221장)

1.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아버지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2.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녕히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3. 후일에 석양 가까와서 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4.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켜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후렴) 내 주 예수 뵈을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뵈을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 소망과 위로의 말씀



*God's Words for Hope and Consolation*

## 시편 23편

1 (다윗의 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  
다. 4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 요한복음 11장 21-44절

21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  
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22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  
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니 23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므로  
24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매 25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27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  
고 34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 예수님께서 우시더라...38 그러므로 예수님께

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으로 가시는데 그것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sup>39</sup>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매 <sup>40</sup>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sup>41</sup>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sup>42</sup>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sup>43</sup>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sup>44</sup> 죽은 자가 손발이 수의로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이 수건으로 묶였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 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 고린도전서 15장 35-54절

<sup>35</sup>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sup>36</sup>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sup>37</sup> 또 네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별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sup>38</sup>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sup>39</sup>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니라. <sup>40</sup>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며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sup>41</sup>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 면에서 다르도다. <sup>42</sup>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키지며 <sup>43</sup>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키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키지며 <sup>44</sup>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키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sup>45</sup>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sup>46</sup>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였으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sup>47</sup>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sup>48</sup>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sup>49</sup>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sup>50</sup>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sup>51</sup>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sup>52</sup>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키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sup>53</sup>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sup>54</sup>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 고린도후서 4장 17-18절, 5장 1-9절

<sup>17</sup>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sup>18</sup>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sup>1</sup>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sup>2</sup>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sup>3</sup>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별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sup>4</sup>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sup>5</sup>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형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시니라. <sup>6</sup>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7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 보는 것으로 견지 아니하노라.) 8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9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절

13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4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 요한계시록 22장 12-21절

12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 이라...16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20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2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Where Are You Headed?*

어떤 사람이 험레벌떡 뛰어와서 막 떠나려는 기차에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숨이 가빠 험떡이며 땀을 닦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놓칠 뻔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네! 이 열차를 놓쳤으면 네 시간이나 무료하게 기다릴 뻔했습니다.”

짧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씩니다. 하지만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며 참된 길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의 작품인 진화론은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동차나 비행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설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입니다. 먼지 가루를 땅바닥에 놓고 아무리 수억 년의 세월을 기다려도 자동차나 비행기가 저절로 생겨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게 이루어진 인간이란 존재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인간과 온 우주를 우연의 결과로 돌리는 진화론은 과학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설과 이론뿐인 신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히브리서 3장 4절).

성경은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로마서 1장 20절).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계 부품을 통에 넣고 흔든다고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분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해와 달 같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로마서 1장 21-23절).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이교도들은 돌덩어리를 깎고 나무를 새겨서 만든 각종 형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 세상의 슬픔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왜 세상에 슬픔과 혼돈이 가득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이사야서 59장 1절)

인간이 제멋대로 행한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로 인한 에이즈(AIDS)의 만연도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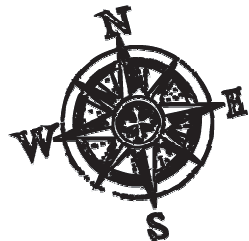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로마서 1장 27절).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므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마다 자기 물건을 검사하여 설계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 폐기시키는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도 창조물인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행하면서 창조자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부모자식 간에도 존재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면서도 눈앞의 일에만 빠져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쉴 새 없이 시계를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이 치닫고 있는 방향은 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브리서 9장 27절)

부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파멸의 문턱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원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향 없는 인생, 떠돌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하고 낫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까맣게 잊고 있던 일과 자신도 모르던 마음의 의도까지 낱알이 다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의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로마서 3장 10-11절). TV나 신문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들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죄인이면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려고 애써 보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철학에 몰두하고 종교에 심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심판을 잊게 해주거나 조잡한 변명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인간이 하는 그 어떤 노력에도 구원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장 8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9장 13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창조물인 우리 사람은 창조자께서 열어 놓으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지금 이 글을 읽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은 채 살아가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11장 28-30절).

당신은 이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 [www.cbck.org](http://www.cbck.org) | [www.KACR.or.kr](http://www.KACR.or.kr)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장 25-26절)

# 개구리와 함께 하루밤만 더 쉬다



*One More Night with Frogs*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영광을 취하소서. 내가 언제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그 개구리들을 멸함으로써 그것들이 강에만 남아 있게 하리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하므로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될지니 이로써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왕께서 아시리이다(출8:9-10).

홍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고,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파라오)이 통치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속박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하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열 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닥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어디에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침실에도 개구리, 부엌에도 개구리, 거실에도 개구리, 빵 반죽 통에도 개구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파라오]가 만일 그들이[이스라엘 백성] 가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들로 네 온 지경을 치리라(출8:2).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빵 굽는 오븐을 여는 이집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개구리가 튀어나오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한 친구가 안락한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젖히는데 그 안에도 그의 잠자리 친구가 되려는 개구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그의 옷에 올라가 앉아 있고, 주머니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들이 발가락 사이에 끼어 짓이겨지며, 학교로 가는 이집트 소녀들의 발길에 채이는 것을 보십시오! 궁궐에도 개구리, 더러운 오두막에도 개구리, 작은 개구리, 큰 개구리!

개굴개굴 우는 그 시끄러운 소리에 귀가 다 멎을 정도입니다! 집안에도 개구리, 뜰에도 개구리 -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강에서 나옵니다. 수많은 개구리들이 죽임을 당한 뒤 악취 나는 산 무더기로 쌓아 올려진 광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파라오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러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주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에게서 옮기시게 하라. 내가 백성을 가게 하리니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것이니라(출8:8).

모세는 틀림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드디어 파라오가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파라오가 개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그 개구리들을 멸함으로써 그것들이 강에만 남아 있게 하리이까?(출8:9)

이에 파라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출8:10).

### '내일'이니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아니 '내일'이라니, 그건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이 아닙니까? 개구리가 그의 음식에도, 침대에도, 옷에도,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널려 있어서 그와 그의 백성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언제라도 그 개구리들을 즉시 없애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파라오의 결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지내게 해 주시오!" 어떻게 그는 그토록 지긋지긋한 개구리들과 함께 하룻밤을 더 지내고자 했을까요?

파라오는 죄인이자 죄인들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고 자만하며 육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벗어나 길 잃은 사람 즉 오늘날의 많은 죄인들의 좋은 표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그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죄인들처럼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는 그의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죄 때문에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의심, 무거운 짐, 고통, 질병, 슬픔, 두려움, 혼란, 절망, 비탄의 개구리들. 이것들 모두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것들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슬픔과 어려움의 개구리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개구리들을 제거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와 같이 우리들 대부분은 "내일 제거해 주십시오! 부디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함께 묵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내일'이라고 말했으나 성령님께서서는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히 3:7-8).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는 '내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서는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너무나 잘 씁니다! 어떤 크리스천에게 가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라고 설교해 보십시오. 그는 '그래야 한다'

는 것도 알고 있고 자신이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구속받은 존재인 것도 인정합니다(고전 6:20). 그는 성화되고 성령 충만한 삶만이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참된 예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기로 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내일'입니다. 그는 언제나 '내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 패배하여 황폐하게 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배교자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청해 보십시오. 그는 대개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형제님, 저도 확실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이후로는 슬픔과 비참함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비참한 생활에 진절머리가 나요. 주님과 의 교제를 끊은 뒤로는 아픔과 슬픔, 어려움과 패배만을 겪어왔어요. 저는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이에 당신은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홀륭하십니다. 자,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그 배교자는 말합니다.

“저, 형제님, 지금 당장은 안 되구요, ‘내일’ 하겠습니다.”

그는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을, 그의 육적인 욕망과 함께 하룻밤을, 타협하고 흥청망청 마셔대면서 하룻밤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깃발을 내어 던지고는 하룻밤을 즉 더러운 개구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미국의 뉴욕에서 열다섯 살 된 한 소년이 거리 밑의 하수구 통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다툰 뒤 집에서는 더 이상 자기가 필요한 존재가 못된다고 느끼며 낡아서 내버려진 큰 하수구 통에서 살기로 하고 그곳에다 잠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낡고 더러운 매트 위에서 자고, 음식을 끓일 수 있는 버너가 하나뿐인 조그만 석유난로에서 요리를 하며 하수구 통 안의 쥐들과 이 주일을 지낸 뒤에야 마침내 경찰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집에 데려 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애야, 네가 집에 돌아오기만 했다면, 난 그다음 날 바로 너를 용서했을 거다!” 많은 배교자들은 죄 많은 세상의 하수구 통에서 두 주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 많은 경우에 거의 일생을 -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눈물을 입맞춤으로 씻어 주시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9).

길 잃은 죄인 역시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을 더 지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승리자는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짐을 들어주실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말에 종종 그 죄인은 여러분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으려 하지만 끝에 가서는 ‘내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늘 미루기만 하는 ‘내일 사람’(Tomorrow men) 셋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대담무쌍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자 더 이상 그 사람으로부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 희생과 궁핍한 생활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최상의 잠자리’에서 ‘하룻밤 더 즐기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59절). 그러나 그는 “주님, 내가 먼저 무엇 무엇을 하게 허락하시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내가 먼저!’에 있었습니다.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물론 그의 아버지가 정말로 죽었다면 그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남자의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함께 지내려 했습니다.

이 구절의 요점은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부모님이나 다른 친인척들에게 더 헌신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여 쉬기 위해 주일(Lord's day)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예전에 자기들의 육신적 욕망을 채워 주던 농장으로 되돌아가 빈둥빈둥 지내기 위해, 자기들의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주의 날에 먹고 잡담이나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무엇 무엇을 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기 전에 자신들의 부모님 혹은 어린 자식들 혹은 사랑하는 이들을 말 그대로 무덤에 장사해야만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영안실과 묘비에서 ‘하룻밤만 더’ 지내기 위해 자기의 옛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들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자원했던 세 번째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바로 그의 문제였습니다. 휴즈(Walter Hughes)는

이 구절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보통 교회 주변에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당신이 양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러나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가서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가대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도로부터 혹은 죄인으로부터 늘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여기서 우리는 또 ‘내가 먼저’라는 아주 익숙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과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단숨에 예수님을 ‘주님’(Lord)이라고 부르고 나서는 “내가 먼저…”(me first)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남자가 알고 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그의 가족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만약 그의 가족들이 그를 보았다면 곧장 달려가서 그에게 금방 내렸던 결정을 반복하라고 충용했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눅 9:62).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남자와 같은 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주를 따르겠사이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방종함을 허락하십시오. 하룻밤만 더 컨트리클럽에서, 혹은 놀음판에서, 혹은 무도회장에서, 혹은 선술집에서 보내게 해 주소서.”

비록 그들이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함께!’라고 말하지만 그 ‘하룻밤’은 끔찍하고 끝없는 밤 즉 ‘영원히 어둡고 캄캄한 밤’으로 계속해서 연장되고 맙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리브가라는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아브라함의 종과 즉시 떠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을 때 그녀가 했던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은 모두 과거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이삭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겠다는 결정을 단숨에 내려야만 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은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리브가에게 이르렀습니다. 리브가는 그 사람과 그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했으며, 이 충성스러운 종은 자신이 마침내 자기 주인의 아내가 될 처녀를 제대로 찾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은 그 종이 이삭의 막대한 재산을 보여 주는 보석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런 것들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떠나야 했고 떠나기 전날 밤에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녀의 큰 오라비 라반은 이마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것 좀 보라, 얘야, 리브가가 이 일을 서두르게 할 순 없어. 아직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아침 신문 사회면에 널 사진도 찍지 않았잖니!”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리브가처럼 혼수 상자나 웨딩드레스 하나 없이 결혼하는 처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그들은 이삭의 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창24:55).

이처럼 신앙이 없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종종 죄인들이 단숨에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더 이상 머물기를 거절하자 그들은 리브가를 구슬려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도록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리브가야, 이 사람과 함께 갈 거니?”(창24:58)

그때 리브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I will go!)

‘만약’도, ‘그리고’도, ‘그러나’도 없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태도도 없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일어나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더 이상 개구리와 함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리셨다면 저는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플로리다주 어떤 마을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개구리에 관해 설교하던 그날 밤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온 영리하고 매력적인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의 어떤 동아리 모임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배를 드린 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날 밤 교회를 나서며 그녀는 제게 눈을 반짝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게는 더 이상 개구리와 함께 지내는 밤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고 있으며 그녀의 고백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왜 여러분이 개구리와 단 하루도 더 지내서는 안 되는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하려 합니다!

1. 개구리는 내일 떠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회가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젊은 부자 치리자도 구원을 얻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에 아주 근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탐욕이라는 암이 그의 영혼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렸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다음 날도 슬픔, 비참함, 불행, 허전함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개구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샀습니다(욘1:3).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요나는 깊고 푸른 바다 위에서 ‘하룻밤’을 즉 하나님의 방법 대신 요나 자신의 방법으로 하룻밤을 더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항상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나운 비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낡은 배는 빼거리거리고 신음소리를 내며 빙글빙글 돌고 흔들거렸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내던져지기까지 그 배는 확실히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삼킬 커다란 고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역사상 최초로 고래 잠수함을 탄 승객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래 배 속이라는 이상한 배 안에서 지중해행 여행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요나는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래가 느꼈던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실로 배교자는 너무나 메스꺼운 존재라 고래조차도 요나를 더 이상 참아 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요나는 성경에서 가장 소화가 안 되는 사람으로 불린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고래를 해변으로 끌어 올리셨고 드디어 고래는 요나를 자기 배 속에서부터 끌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단추를 누르셨고 고래는 심을 얻었으며 요나는 배에서 튀어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기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니느웨를 향해 마른 땅위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그같이 많은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방법대로 했을 때는 개구리가 떠나지 않았고 다른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시에 있는 교도소를 처음 방문했던 것 - 수감자로서가 아니라 단지 방문자로서 - 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 단체에 속한 여성 회원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자 죄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월요일마다 그곳에 내려갔고 그날 아침 저도 감옥에 있는 여인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 갔습니다. 그들이 우리보고 여자들이 있는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매춘과 악으로 얼룩진 세월을 지내고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더럽고 늙은 사회의 낙오자들, 추한 노파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옥이 온통 십대의 소녀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가장 어린 소녀는 열네 살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열일곱 정도였습니다. 거기서는 ‘나이든’ 여인이래야 겨우 이십대였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전 주말에 무도회장 주변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열다섯 살 먹은 한 아름다운 소녀는

자정 무렵에 대략 열 명의 선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발견되어 잡혀왔습니다. 제가 한 소녀에게 어떻게 그런 생활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물어보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실은요, 목사님, 전 춤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더럽고 누추하며 낡은 감방으로 더러운 침상이 놓여 있고, 빈대 및 쥐들이 밤에는 그들의 발밑에서 돌아다니고 공중 화장실에는 문도 없고 고약한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녀들에게 설교한 뒤 크리스천이 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그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바르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으며 그들이 진정한 행복과 용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하자 그들은 단지 히죽히죽 웃고 고개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죄의 맛을 보았고 그들의 옛 육신은 그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만, 싫어요! 제발 우리가 쥐와 빈대와 하룻밤을 더, 더러운 감옥에서 하룻밤을 더, 개구리들과 하룻밤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이대로 내버려주세요!”

그러나 개구리들은 다음 날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들은 여전히 감옥에 그들의 죄 속에 비참함 속에 감금된 채 있었습니다!

플러(Charles E. Fuller) 목사님은 “구식의 부흥 시간”(Old Fashioned Revival Hour)이라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교회로 데려갈 수 없었던 한 크리스천 부인은 그 방송을 듣고 있었고 자기 남편이 집안 어디에 있든지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라디오의 음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 복음 설교에 너무나도 화가 난 그녀의 남편은 마침내 부엌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져 그 라디오를 산산조각 내 버렸습니다. 그가 플러 형제의 목소리를 잠시 동안 멈추게 할 수는 있었으나 자기의 영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설교를 멈추도록 라디오를 부순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비참함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개구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떨쳐 버릴 수 없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분은 또 다시 라디오 하나를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죄인들은 자기들이 모든 일을 바르게 한 뒤 교회에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참으로 저는 똑바로(혹은 올바로) 되었을 때 크리스천이 되겠어요.”

“우리 말을 믿으셔도 돼요, 목사님, 우린 모두 똑바로 되자마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죄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단지 그들이 판자처럼 곧고 뻗뻗하게 되었을 때 즉 죽어서 송장이 되어 똑바로 되었을 때뿐입니다. 그들은 약 2미터 길이의 상자 안에 담겨진 채 교회 안으로 굴러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꽃들이 쌓여진 채 예배당 앞의 상 위에 올려집니다! 비록 그들은 이제 똑바로 되었으나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일들이 모두 똑바로 되고 개구리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두 맡기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일을 내맡기시고 당신을 위해 똑바로 펴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보다 더욱더 곱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내일 떠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도 더 지내서는 안 되는 까닭이 또 있습니다.

## 2. 개구리 대신 더 나쁜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파라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개구리 다음에 이, 파리, 메뚜기, 악질, 불, 어둠, 그리고 마침내는 이집트 각 가정에 만아들의 죽음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오 완전하고도 참혹한 비극이여!

오 죄인의 비참함이여!

개구리들이 그들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모든 교만한 자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사2:11).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개구리보다 더 나쁜 것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많은 죄인들과 함께하며 돈과 물건들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탐욕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여전히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찢러 꿰뚫었도다(딤후6:9-10).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찢러 꿰뚫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돈에 미친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가정과 건강과 자기들의 자녀들과 도덕과 하나님조차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개구리들을 견뎌 내고 있으나 어느 날인가 더 나쁜 것이 개구리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녁 부흥회 전에 한 아름다운 농장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곱슬머리를 가진 예쁜 남자 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아기의 조그만 발바닥에서 ‘타닥타닥’하고 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것 같았으나 슬픔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집은 훌륭했고 창고는 인상적이었고 거의 새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께 들은 바로는 그 사람들은 서로 잘 지냈고 돈도 잘 벌었고 농장도 번창했지만 그 곱슬머리 아이가 거의 우상이 되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우 바쁘게 되었고 모든 일은 너무나 순조로웠으며 그 결과 자기만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이 찾아 왔으나 여전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비극이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을 때 창고가 불탔고

그들의 어린아이는 그만 그 불꽃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가 창고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 부모는 절망을 안고 대단히 낮아져서 하나님께로 왔고, 그들의 삶을 내놓고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로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대가입니까!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회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겠고 네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 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안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 말하노라(렘2:19).

오,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더 나쁜 것이 개구리의 자리를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시리아의 벤하닷 왕과 늘 함께 있던 것은 술이었습니다! 그는 대형 천막 안에서 술을 마시 크게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잠20:1)고 말씀하시지만 죄인들은 그분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술꾼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마침내 시리아 군대는 패배했고 그 뒤 벤하닷 자신은 결정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쁜 것이 옵니다. 여러분은 술과 동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라이스(Bill Rice)가 시카고 시에서 데뷔 파티를 가지면서 처음으로 사교계에 나온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엉뚱한 모험을 하기 시작했고 새벽 3시경에 동물원에서 동물들과 함께 놀다가 그곳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곰들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교계에 처음 데뷔한 여인’은 회색빛을 띤 크고 늙은 곰을 향해 철장의 막대 사이로 자신의 팔을 내밀고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 곰은 갑자기 그녀의 팔에 달려들어 앞발로 그녀를 철장의 막대에 밀어붙이고는 짓누르면서 그녀의 손과 팔로부터 고기를 떼 내어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 곰이 그녀의 팔을 어깨까지 깨끗이 먹어 치웠을 때에야 비로소 술 취했던 그녀의 친구들은 앰블린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깨까지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토록 ‘개구리를 대신해서 더 나쁜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빈 소매를 가혹한 기념물로서 달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더 이상 개구리와 하룻밤도 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 내일은 결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잠27:1)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히2:3)

최근에 미국은 ‘갑작스런 죽음의 땅’으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에만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831명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던져졌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621명은 고속도로에서 참사를 당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의 한 일간 신문에서 미국인 가운데 약 400-500명이 해마다 벼락을 맞아 죽는다는 것을 읽고 놀랐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누구든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지금 당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지고한 뜻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악한 자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은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창6:3)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단순히 믿음으로 그분께 온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6:37).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몫을 모두 다 이행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미 피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요3:36)

그렇지만 당신이 회개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테네시주에 사는 어떤 부인은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과 다른 분들께 자신이 부흥회 때 앞으로 나아가 믿음을 고백해야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공중 앞에서 믿음의 서원이나 약속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고 복음도 들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손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다. 그다음 날 오후 저녁 식사 시간에 그 교회의 목사님은 긴급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 아침 늦게 병원에 실려 갔고 오후가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타누가시에 사는 열여섯 살 난 소년은 타이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타이어가 그의 얼굴 앞에서 터졌고 이를 뒤 그들은 그 소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버밍엄시에서는 한 부인은 자기 잔디밭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TV 안테나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순식간에 그녀의 앞마당에 그녀를 묻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다음 날 피츠버그시에서는 견인 트럭의 중간 부분이 구부러지면서 강철로

된 막대기 몽치가 집을 꿰뚫어서 두 명의 여인이 즉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와 있는 잭슨빌 교회의 목사님은 지난해 12월 여객기가 활주로에 닿기 전에 추락해서 17명의 영혼을 영원 속으로 보낸 곳의 초토화된 현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미국은 참으로 ‘갑작스런 죽음의 땅’입니다.

제가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 목사로 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죄인인 남편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날 정도로 술을 마셔대는 술꾼으로서 난폭하고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러 갔습니다. 그는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다음 주일에는 교회에 왔습니다. 훌륭한 안내원들이 그를 앞쪽으로 앉혔습니다.

몹시 더운 날도 아니었고 코트도 걸치지 않았는데 그는 셔츠가 몸에 달라붙을 정도로 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괴로운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고 그는 설교가 끝날 때 목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강단 앞으로 나왔지만 그는 비참한 상태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고 끝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교회를 나설 때 저는 문에 서서 부디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당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권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 요청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가 알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나중에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대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해도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는 그날 밤도, 그다음 주일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러 갔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그를 찾아갔으나 그는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술을 마셨으며 전보다 더욱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장교들을 태우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60킬로미터 떨어진 공군 기지로 차를 운전해 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거리였습니다. 그는 빨리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멧돼지가 튀어나왔고 그는 그것을 피하려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차 오른쪽 앞바퀴가 교량의 받침대를 들이받아 차가 밑으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이 즉시 그를 관통했고 그는 즉사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내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내일’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며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걷고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네 마음에서 제거하고 악을 네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은 때는 헛된 것이니라(전 11:9-10).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오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땀을 가는 자들이 수가 적으므로 일을 멈추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또 땀을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고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또한 그들은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움들이 길에 있으며 아몬드나무가 무성하고 매뚜기가 집이 되며 욕구가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오래 존속하는 집으로 가고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라. 혹은 은줄이 풀리거나 금그릇이 깨지거나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거나 바위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때에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전12:1-7).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전12:13-14).

저는 시카고의 오케스트라 홀에서 있었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로>라는 집회에서 함블렌(Stuart Hamblen)<sup>2)</sup>이 직접 전해 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다른 친구 하나는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저 멀리 황야에 있는 낡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집의 무너질 듯한 울타리, 겨우 문짝에 걸려 있는 문, 정문에 앉아 있던 뼈만 남은 개 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개는 며칠 동안이나 굶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 낡은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씩어서 무너질 듯한 앞마당의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현관에 섰습니다.

2) 함블렌이 1954년에 만든 '이 낡은 집'이라는 제목의 노래는 소유자가 죽은 뒤에 폐허로 남게 된 집을 묘사하며 사람의 몸도 죽음 이후에 이와 같음을 표현한다.  
<https://youtu.be/0WhLhF12TBE> (This Old House by Stuart Hamblen)

현관의 커튼은 너무 낡았고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창문들은 깨져 있었고 현관문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은 노인이 살고 있던 그 낡은 집의 안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유리 창문을 부숴놓고 현관에 많은 먼지를 뿌려놓은 황야의 폭풍우 속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현관이나 마루, 혹은 창문을 고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크리스천이었다면, 그는 먼저 간 성도들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영원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함블렌은 ‘이 낡은 집’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는 사람이 살아왔던 그 낡은 집 즉 자기 몸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블렌이 그런 멋있는 노래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해 훨씬 더 훌륭한 시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에서 읽은 성경구절이 바로 ‘이 낡은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으로써 인간의 몸이 쇠퇴하는 것을 오래된 집이 소멸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12장의 서두가 ‘젊은이들’ 혹은 ‘청년들’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말씀은 점점 나이를 먹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며 무서우면서도 실제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나이를 먹었든지 상관없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보다는 지금 더 젊다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이 경고해 주듯이, 바로 지금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활발하며 걱정 근심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합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빠르게 어른들이 됩니까? 또한 갓 결혼한 젊은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중년층들의 공통적인 걱정거리에 쌓이게 됩니다. 그 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죽음으로부터 겨우 한 발짝 정도 떨어진 때 즉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노년의 때를 맞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적절하게 성령님께서 그 장의 서두를 ‘기억하라’(Remember)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전에 저는 모든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R’자로 시작하는 다른 세 가지 낱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

1. 기뻐하라(Rejoice)
2. 금하라(Restrain)
3. 제거하라(Remove)

제가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단어는 ‘기뻐하라’(Rejoice)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라(전 11:9).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이 노인들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직 젊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젊은이답게 행하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재미있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날이 곧 닥쳐오므로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많이 웃으십시오. 당신 앞에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다음의 외침 속에서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 아침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시90:14).

다시 말해, 언제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워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너무 어리므로 경건한 삶에 전력을 기울일 수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아 왔던 사람들 중 가장 행복한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이들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저는 방마다 TV를 설치해 놓은 모텔에 거했습니다. 저는 거의 TV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으며 저는 뉴스를 들으려고 TV를 켜습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청소년들의 댄스 쇼 프로그램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옷 갈아입는 것을 멈추고 그 젊은이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죄인들이란 기껏해야 좋은 시간을 갖는 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고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 가운데 나는 웃고 있는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심각해 보였고 심지어 비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멍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사람을 그토록 불행하게 만든다면 나는 더욱더 크리스천으로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뉴욕주의 브루클린에 있는 한 젊은 부부는 자신의 아기를 목매달고는 자신들도 자살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으며 대학교까지 다녔다고 그들의 친척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살 만 했으며 거의 필요한 것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즐거워하는가?”라는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복 주심, 그것이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며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게 될 때 시작됩니다.

제가 살펴볼 두 번째 단어는 ‘제지하다’ 혹은 ‘금하다’를 뜻하는 ‘Restrain’입니다. 그 단어 자체는 전도서 11장 9절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단어가 보여 주는 진리는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러나……”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라로 데려가실 줄 알라.

당신의 젊음과 환희가 있는 곳에서 당신은 스스로 금하며 자신을 제어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계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터무니없는 열정을 금하고 젊음의 탐욕을 피하며, 흥청거린 뒤에 그에 따른 대가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날만큼 그것에 대한 대값의 날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민32:23)는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 드릴 세 번째 단어는 ‘제거하다’를 뜻하는 ‘Remove’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네 마음에서 제거하고(전11:10)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제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네 마음에서 제거하고 악을 네 육체에서 치우라(전11:10).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몸에서 사악한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은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온 인류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음속의 깊은 근심, 시련, 고통, 이혼, 슬픔 등은 육신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 줍니다. 우선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결국 욕심으로 인해 이 세상 속에 거하게 되는 부패를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이미 우리를 위해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 번 태어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누구나 악을 치워 버림으로써 슬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한 슬픔들을 제거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눅13:3).

당신에게서 악을 치워 버림으로써 슬픔을 제거하십시오. 그런데 악을 치워 버리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와는 정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요일5:19).

이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너 스스로 하라.”고 노래합니다.

이 세상은 “실컷 놀아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젊은 혈기로 난봉을 부려라. 그리고 영원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속삭이는 말을 조용히 들어 보면, 당신은 그 속에서 뱀의 혀가 들락날락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인류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이브에게 그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즉 그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창3:4)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자유’란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자유분방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옛날의 성도들 중 한 명이 “자유란 기꺼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한계 내에 거하려는 데 있다. 이것 이외의 다른 것은 반역이며 방종이며 노예근성이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전도서 12장 1절의 ‘기억하라’(Remember)의 ‘R’자를 생각해 봅시다.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시9:17).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작정한다면 바로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신이 젊을 때 그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 그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는 때입니다”(고후6:2).

하나님께서서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나이가 들게 되면 머리가 굳어지고 영혼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흥 집회를 다녀보면 회심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아이들입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부류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의 대다수는 청장년들입니다. 노인들은 단지 한두 명뿐입니다. 만일 한 해에 천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그중 노인들은 대여섯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 같은 통계는 당신이 서둘러서 결정을 내릴 것을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 구원받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제가 머물렀던 플로리다주의 어떤 모텔 상공에서 제트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고공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에 참가한 비행기들은 서로 속도를 맞추어 가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훈련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비행기들 중 한 대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조종사가 낙하산을 펴고 안전하게 착륙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비행기의 조종사는 다시 제대로 비행을 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비행기는 무섭게 한 바퀴를 돌더니 땅을 향해 곤두박질하기 시작했고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조종사는 낙하산을 펴고 비행기를 탈출함으로써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뛰어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서진 비행기 조각과 그의 시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비행기를 탈출하여 목숨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재난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 그는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만을 믿다 결국 끝에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 크리스천이 되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당신의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늙을 때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신문에 있는 기사들 중 가치 있는 것들을 모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들을 보며 저는 사람을 영원으로 보내는 매우 무서운 비극들 중 많은 수가 젊은이들과 청장년들에게 일어남을 발견합니다. 워싱턴시에서 열여섯 살 난 남자아이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불렀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가게로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파는 곳에서 두 명의 젊은이들이 더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차를 탔고 그들이 탄 차는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구불구불한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나무를 세계 들이받았고, 그들 중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한 명은 앰블런스차로 병원에 호송되던 도중에 죽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다음 날 새벽에 죽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 중 한 명은 아침 식사 시간에 죽었고 맨 끝에 남은 아이도 결국 정오에 죽고 말았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는 몇몇 청소년들이 누가 더 숨을 오랫동안 쉬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승리한 친구는 숨을 계속해서 참고 있다가 결국 죽어버릴 정도로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고차를 탄 네 명의 청소년들이 시속 120km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하다가 종려나무를 들이받았

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에 있던 큰 콘크리트 덩이가 차 전체를 덮쳐서 네 명 모두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콘크리트 덩이는 배를 정착하기 위해 배의 뒷부분을 가리안히는 데 사용하는 바닥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니다. 당신이 늙을 때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므로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늙게 되면 그분을 기억할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어른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주일 학교를 다닌 적이 있으며 부흥회에도 참석해 본 적이 있고 크리스천이 되어야겠다고 무척 많이 생각해왔다고 제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젊을 때 자기들의 창조자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굳어졌고 목이 뻣뻣해졌으며 심지어 가슴은 하나님께 대항할 정도로 강박해졌습니다.

그들은 제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혜의 대왕이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오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전12:1-2).

만일 죄인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인 그 사람도 예전에는 십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작은 아이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옆에 있는 굴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그는 폭포가 내는 엄청난 소리에 너무나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안내원에게 자신의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는 그 큰 소리가 이제는 정상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들을 수 없게 될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늙어서 가슴 아프지 않도록 지금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활히 보셔서 당신이 늙게 되었을 때 그분을 영접하도록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당신은 왜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마귀를 섬기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며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을 일생 동안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인 사탄에게 내다 준 뒤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은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 죽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눅23:42에 나오는 십자가 위의 강도). 어떤 이는 그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절히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구원은 어느 누구도 실망하지 않도록 성경 속에 한 번 나오며, 어느 누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리스도께 내 삶을 내어 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탄식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가장 큰 탄식은 “왜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가!”하고 외치는 것일 것입니다. 사악한 날이 오기 때문에 당신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전12:1).

우리 앞에는 늘 악한 날들 즉 문제와 시련의 날들이 다가옵니다. 그것들은 병, 가난, 의기소침, 재난, 공포, 전쟁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때고 악한 날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폭풍우가 덮치기 전에 피난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낡은 집’에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므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젊었다가는 곧 늙고 맙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해 지는 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집’이라 불리는 육신의 몸 즉 ‘이 세상에 잠깐 있게 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곧 쇠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대가 떠나되 목자의 장막같이 나를 떠나 이동하였고 내가 베 짜는 자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양 치는 목자들은 여러 곳을 옮겨 다녀야 하므로 그들의 텐트(집)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쉽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으나 내일은 가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몸은 마치 오래되어 낡은 집과 같습니다. 욕기 4장 19절은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좀 앞에서 무너지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고후 4:7)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쯤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고후5:1).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썩어가고 있는 집에 살고 있으며, ‘이 낡은 집’은 솔로몬이 기술한 전도서 12장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 ○ 집을 지키는 자들이 멀며

누구에게 위협을 받거나 혹은 공격을 받게 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두 개의 팔 즉 집을 지키는 자들을 휘두릅니다. 지금 당신의 팔은 매우 강하며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이 점점 더 나이를 먹게 되면 당신은 팔 근육이 점점 더 많이 떨게 됨을 느낄 것입니다.

### ○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머리로 서지 않고 손으로 걷지 않으며 우리를 가장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강한 자들’ 즉 두 다리 위에 우리의 체중을 얹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활동적이며 강건한 젊은이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 이 ‘강한 자들’도 나이가 들게 되면 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병원에 병문안을 가서는 계단을 통해 병실까지 뛰어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 뒤 몇 년이 지난 뒤 저는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닙니다.

얼마 전 한 식당에서 저는 어떤 노인이 버스에 오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의 다리가 휘어지며 그가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그 노인의 ‘강한 자들’이 자신들을 구부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지팡이 같은 보조 기구가 필요합니다.

### ○ 맷돌 가는 자들이 수가 적으므로 일을 멈추며

요즘 우리는 늙어서도 틀니를 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맷돌 가는 자들’(이빨들)이 없어지는 것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일 틀니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간증 집회에 나와서 “내게는 단 두 개의 이빨만이 남았는데 다행히도 그들은 서로 부딪히기는 합니다.”라고 말했던 어떤 노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가 없어지거나 혹은 썩는다는 것은 우리의 남은 집이 빨리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며

우리의 눈들은 간단히 말해 우리 영혼의 창문입니다. 사람들은 눈 즉 집의 창문을 통해 몸 밖을 봅니다. 물론 우리들 중 몇몇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눈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결국 그것들도 쇠퇴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점차로 우리의 시력은 감퇴하며 창문들은 어둡게 되고 맵니다.

### ○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우리의 귀도 나이가 먹음을 보여 줍니다. 당신은 “잘 안 들려, 더 크게 말해 봐.”라고 외치는 노인들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리에 있는 문들이 점차로 닫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귀가 먹어 결국 복음을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으십시오!

### ○ 새 소리에 일어나며

당신은 노인들이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깨우지 않으면 점심때까지도 내쳐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새벽 해가 뜨기만 하면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믿기 어렵지요? 그러나 그들은 닭 우는 소리에 잠을 깹니다. 나이를 먹게 되고 장례를

치를 날짜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 당신은 수탉이 울기만 하면 깨어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 “신체검사를 다시 한번 해 볼까?”, “아마도 조그맣게 부은 곳이 암일지도 몰라.”, “아마도 이제는 담배를 줄여야 할까 봐.” 그러다가 갑자기 죄인은 깨어나서 신경질적이며 떠는 손으로 커피포트를 집으려 일어납니다.

○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며

음악하는 딸들 즉 우리의 성대도 나이를 먹음에 따라 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들은 아직도 음악하는 딸들이 쇠하지 않은 청년들이나 청장년들을 모집하느라 분주히 다니고 있습니다.

○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당신은 당신의 할머니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감히 절벽 밑을 내려다보려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으며 당신은 할머니가 그리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은퇴하신 제 아버님에게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주에서 조지아주의 아틀란타까지 와서 저를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게 “제발 나보고 비행기를 타라.”고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낡은 집’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기 전에 비행기도 타야만 합니다.

○ 두려움들이 길에 있으며

노인들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특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자신의 앞날을 모르므로 당황해하며 무서워합니다.

○ 아몬드나무가 무성하며

이것은 다시 말해 하얀 잎이 나무 꼭대기에 무성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남자든 여자든 모두 흰머리가 많아집니다.

○ 메뚜기가 짐이 되며

‘낡은 집’이 점점 더 쇠퇴해 감에 따라, 메뚜기처럼 너무 작아서 젊은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노인들에게는 매우 큰 짐이 됩니다.

○ 욕구가 그치며

노인들에게는 삶에 대한 열정이 모두 식어지고 눈에서 빛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낡은 집’은 점점 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흰색으로 변하며 지푸 빠지는 머리카락 속에서, 피부의 주름살 속에서, 눈가의 주름 속에서, 이가 썩는 것 속에서, 심장의 두근거림 속에서, 걸음걸이가 늦어지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이 낡은 집’이 점점 더 나이를 먹어 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던 친구나 가족을 몇 년 동안 못 본 뒤 그들을 만나게 될 때 이 같은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늙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낡은 집이 무너져서 결국 영원토록 소망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과 함께 이 낡은 집이 무너지게 될 때 새로운 몸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고전15:53).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손으로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내가 나쁜 목적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해야 할까요? 맥주병을 따거나 카드놀이를 하며 혹은 도색 잡지를 드는 데 손을 사용해야 할까요? 손들을 움켜쥐지만 하면서 이기적이 되어야만 할까요? 혹은 내가 구원자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내 손을 넣어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 손을 내어놓아야 할까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리들도 힘이 없어 휘게 되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의 건강한 다리를 갖고 무엇을 하시렵니까? 춤추는 데 그것들을 사용하시렵니까? 혹은 그분의 말씀의 빛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시렵니까? 선한 사람(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선하다함)의 발걸음은 주님에 의해 정해집니다(시37:23). 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분께서는 평안의 길로, 공훈의 길로 당신의 발걸음을 정하실 것입니다.

이제 영혼의 창문인 눈들도 곧 어둡게 될 터인데 당신은 지금 그 눈들로 무엇을 하시렵니까? 할리우드의 도색 영화나 애정 영화 등을 보느라 혹은 삼각관계 등의 비정상적인 주제들을 주로 다루는 바보상자 TV를 보는데 그 눈들을 사용하시렵니까? 혹은 흥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더미들을 읽는 데 그것들을 사용하시렵니까? 혹은 당신도 다윗 왕처럼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시119:18)라고 기도하며, 욥처럼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나이다”(욥31:1)라고 말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들(귀들)이 곧 거리에서 닫히게 될 터인데, 우리는 차라리 지금 불신앙의 사람들의 말과 의심하는 자들의 교묘한 말로부터 그 귀들을 닫아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낙담시키는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또한 아직도 귀가 열려 있으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간청하심, 그리고 복음의 명료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 목소리(음악의 딸들)도 쇠하게 되어 결국 죽음 속에서 침묵하게 될 터이므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의 구원을 위해 구원자에게 큰 소리로 간구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뒤에, 이 음악하는 딸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며 그분께 찬송을 드리며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의 욕구가 없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네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네게 주시리라.”(시편37:4)는 말씀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헨리 암스트롱은 세 개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동시에 소유했던 유명한 프로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인 이 집이 이 세상의 돈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께 속하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곧 우리는 영원한 집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인 이 집, 이 세상, 내 조국은 모두 당신이 잠깐 살다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잠시 동안 드러났다가 곧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것입니다(약 4:14).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영원토록 어떤 집에서 지내시겠습니까?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며

이 얼마나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신의 장례식에서 울음을 터뜨릴 사람들이 바로 지금 거리에서 오가고 있으며 당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에 놓일 꽃들이 이미 당신 집 주변의 꽃가게에 진열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의 태양은 당신의 무덤 위에 비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올해가 당신의 무덤 묘비에 적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조객들이 거리를 오고 갑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줄이 풀리며 금그릇이 깨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척추와 뇌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라는 것은 우리에게 피를 공급해 주는 샘터인 심장이 그 기능을 멈출 것임을 보여 줍니다. 지금 우리는 심장병을 많이 앓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위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라는 것은 아마도 호흡 기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전12:7).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 그리되면 이 낡은 집은 영영히 가 버리고 맙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이란 것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 오 영원이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려 하며 사람이란 죽게 되면 개와 똑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들을 믿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보니 소련 사람들은 그들의 시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에 사람 대신 먼저 개를 넣었습니다. 만일 사람이나 개나 다 같다면 그들은 왜 사람 대신 먼저 개를 넣을까요?

크리스천들이여!

당신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들에 대한 심판(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고전3:10-15 참조). 그때에,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 크리스천들이여!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진심으로 한 말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을 원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시116:15).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성도(saints)가 된다면, 당신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고 매우 귀중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신실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오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빌1:21).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당신의 아픈 가슴에 슬픔이 더해졌습니까? 그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재결합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재 대신에 아름다움을, 애곡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근심의 영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십니다(사61:3).

어떤 부자 노인은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낡은 집을 버리고 그들이 새로 지은 좋은 집에 들어가 살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옮겨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노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오래된 집에 남아서 옛 추억을 떠올리기를 원했고 떠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인이 와서는 “주인님 제발 오십시오. 주인님께서 새 집이 더 좋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발 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종의 말은 옳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당신이 현재의 삶을 마감하며 떠날 때, 주님이 주시는 새 집이 우리가 거하던 이 낡은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십시오.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빌1:23)

우리 모두 앞에는 영원이라는 시공간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심장병, 암, 중풍, 백혈병,

갑기 등에 의해 혹은 재난, 홍수, 불, 폭풍우, 회오리바람, 폭설 등에 의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만일 제3차 세계 대전에 핵폭탄이 사용되면 미국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율로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거의 매해 4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서운 교통사고로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심판을 받기 전에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롬2:16)는 어느 누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오, 심판이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나니라(히10:31).

자, 여기에 놀라운 뉴스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무서운 흰 왕좌 심판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분이 이미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간격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죄 없으신 구원자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에 대한 심판을 지셨습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딤후2:5).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십니다(요1:12).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우리는 모두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지금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지금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당신의 창조자를 기억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쇠퇴하고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가며 곧 문제들이 생기고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죽음이 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요3:36)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에

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당신이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꼭 오늘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죄들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먼저 당신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네!”하고 대답하시되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 주위에 있는, 복음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로 가서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증언하고 교인들과 친교를 나누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많은 분들이 마귀의 꾀계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감정 중심의 교회, 은사 중심의 교회, 기복 신앙 중심의 교회, QT나 경배와 찬양(록 음악), 연극 드라마 중심의 교회가 아닌 말씀 중심의 교회에 출석하시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부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펄펄 끓는 불 호수에서 영원을 보내지 마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교제하며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다시 태어나야 한다



*We Must Be Born Again*

목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주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검토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원의 도를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교회 생활이 아무리 재미있고 현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쳐서 보상 심리로 인한 기쁨이 있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구원받고 단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이번에는 크리스천의 기본 문제인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sup>1)</sup>

## 1.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그들이 다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학교도 보내고 애를 쓰고 매도 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똑똑한 아이들은 질문을 잘 합니다. 아무것이나 질문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바른 질문을 잘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른 질문을 함으로써 시작되며 영적 성장도 바른 질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질문이 없는 크리스천들은 대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 즉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했느냐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네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강한 권위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곧 “네가 다시 태어났느냐?”라고 묻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 질문을 받은 당사자가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치리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고위 관원에게, 학식이 많은 사람에게,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즉 똑똑해서 성공한 사람에게 “네가 다시

1) 이것은 2009년 7월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선포한 설교를 요약한 것이다.

태어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으나 자기를 구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통대로 믿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말로 하자면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종교적 체험도 가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 하나님은 제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놀랍게 저를 도와주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 가능하긴 하지만 이것이 새로 태어난 증거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정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정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정을 하나의 장식물로 또는 종교적인 보물처럼 여기고 귀한 자리에 비치해 둡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단지 교회의 구성원일 뿐 다시 태어난 신자는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크게 염려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은 그런 교인 중의 어느 부인을 심방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캐비닛 위에 놓여 있는 아름다운 성경 한 권을 보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좋은 성경이군요. 그런데 부인의 성경책이 좀 더 많이 사용된 것처럼 보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성경을 보물처럼 여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성정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그 책을 소유하거나 세상 책을 읽듯이 그것을 읽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책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임을 인식하고 그 책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영접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책 안의 지식이나 책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회당의 일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믿는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 지역 교회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회사에도 다 ID 카드 즉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회가 없이 방황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분들이 반드시 침례를 받고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와 다른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들어오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내게 충분해. 나는 침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대부분의 예배에 참석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실 수 있겠나?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모르고 있거나 알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듭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종교에 깊이 빠졌으나 다시 태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종교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자 즉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녔어도 새로운 탄생을 체험하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니고데모의 지위로 보아서 그는 약 40-5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네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제가 어머니 배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라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육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괜찮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소경 바디매오처럼 눈이 열려서 여러분 영혼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2.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곧 죽음으로 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치 않게 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종교적 열심에 대해 칭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짜고짜 “네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요구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다 헛된 것이란 말인가? 나의 모든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도 없단 말인가?” 이런 사실로 인해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전 생애를 한 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다.”(요3:6)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창조물만 인정하십니다(고후5:17). 그 밖의 다른 것은 아무리 좋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확신해.”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사64:6)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최고의 선(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큰 거짓말 중의 하나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의 찌그러진 형상대로 그의 죄악 된 모양대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모든 노력과 행위 개선은 시체에 좋은 옷을 입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도 죽은 시체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요3:9)

그는 이제야 비로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하여 매우 단순한 대답을 주셨으며 동시에 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이 길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탄생의 이 큰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태어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날 때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고통 중에 낳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을 고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아무런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겐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려고(요1:29) 가장 무서운 산고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싶으면 그분께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른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숨을 죽이고 저기 십자가에 달려 있는 여러분의 구원자를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 그분께서 치러야 했던 그 엄청난 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저주받은 자로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갈3:13).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경멸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죄 자체가 되어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죄가 되어 달린 그분을 보지도 않으시고 아예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라는 그분의 절규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뒤에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승리를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요19:30)

이 선언과 함께 여러분을 위한 구속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그러면 돌이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과 다시 태어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에는 즉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돌이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래!”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바로 지금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자에게로 돌이키십시오. 지금 이렇게 부르십시오.

“예,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오니 이 불쌍한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 아들이, 내 딸아, 내가 네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네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로써 우리는 마침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으며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생긴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 약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다. 처음으로 비행기가 등장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비행사가 시원찮게 만들어진 비행기 시운전을 하려고 비행기를 몰고 바다 위를 날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를 떠나 약 10킬로미터 정도 나갔는데 갑자기 조종실 바로 아래서 무엇을 굵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경을 기울여서 가만히 들어보니 틀림없이 쥐가 전선을 갉아 먹는 소리였습니다. 그 선이 끊어지면 이 비행기는 추락할 판국이었습니다. 조종사는 순식간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쥐를 떨쳐버리기 위해 비행기를 옆으로 날게 하고 별짓을 다했지만 여전히 갉아 먹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때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조종사는 비행기를 옆으로 날게 하는 일을 그만두고 곧장 고도를 높여 쓴살같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까 그 갉아 먹는 소리가 딱 멈추었습니다.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쥐가 기압 차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우성치지만 더 큰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서 다 포기해 버리고 절망하고 맙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인간의 노력과 수단을 놓으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좌 앞에 서십시오. 참되게 구하는 이들의 삶 속에 값없이 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위로와 교제와 만족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다시 태어난 사람의 증거

며칠 전에는 서울에 일이 있어서 어떤 형제와 함께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니까 영접절에 영접 기도를 드리고 침례를 받으라니까 침례를 받았는데 그 삶에서 믿는 자로서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느낍니다. 이런 현상이 몇 주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가 없으면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구원이란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을 선포하는 저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이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1.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다시 태어난 것을 안다

구원의 확신은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첫째 결과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죄인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따라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들을 용서받으며 동시에 성령님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확신이 올까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알 수 있는 기초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인을 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은 즉시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대답이 이와 같다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며 지옥 불의 위협에 처한 사람입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면 여러분은 수년 동안 외적으로 기독교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 왔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구원이 무엇인지, 죄들의 용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교회 생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펄펄 끓는 지옥 불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모든 교회 생활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이 속임수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 수 있을까요?”의 문제가 아니라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일5:13).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결혼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게 결혼했느냐고 물으실 때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한다면 “이상한데!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결혼했느냐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이라는 때로 묶여서 부부가 된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얼버무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죄인임을 확신하며 제 힘으로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즉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제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천국에 감을 확신합니다.

## 2. 새 생활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두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곤혹스럽게 여기며 중요한 순간이 오면 가장 부담이 적은 길을 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 이야기합시다. 다음에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는 것이 가장 흔히 쓰이는 해결책입니다. 자명한 일이지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새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 일5:12).

오늘 이 책을 보는 분들은 잠시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행4:20). 다시 태어난 사람은 말과 행실에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분의 영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엡

3:17; 요14:23).

“목사님, 그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거창하게 하는 위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곡식 가운데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이 위선을 보였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그 일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교회나 종교 단체에 속해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관심을 두시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을 두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치약 효과 대회에서 우승한 어떤 사람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의 치약이 너무나 좋다는 글을 써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 그에게 전달되기 전에 그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 이가 없이 틀니로 지낸 사람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하며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두 번째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제 저는 잃어버린 죄인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종교 행위를 버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이 작은 생명체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첫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는 것입니다! 만약 울지 않는다면 아마도 죽은 아기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2의 탄생’ 즉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실입니다. 죄 짐에 눌렸던 한 죄인이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영영 울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울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우는 것을 통해 자기가 살아 있음을 보이듯이 영이 다시 산 사람도 자기가 막 받은 놀라운 새 생명으로 인해 남에게 살아 있는 증거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로 드러난다면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다 구원받아 영원을 천국에서 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다시 태어났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친지들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결혼식에 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같은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대개 아름다운 꽃 한 송이(카네이션)를 옷깃에 달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다 같이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그 결혼식에 초대받아 같은 연회에 속해 있음을 압니다.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이름도 모르지만 모두가 결혼식에 초대받았음을 압니다. 서로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들은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알아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카네이션을 보고 향기를 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로 영혼들을 인도하겠다는 열정이 넘쳐나고 그들은 주의 일에 관심이 큼니다. 목회자를 도와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단지 입술로나 생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이제 대전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버스 시간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 시간표는 제게 버스가 7시 30분에 인천에서 대전으로 출발한다고 말해 줍니다. 이 버스가 제가 타야 할 버스입니다. 저는 분명히 버스 회사의 시간표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제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이 저를 대전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산 믿음입니다. 제가 바르게 믿는다면 마땅히 터미널에 가서 그 버스를 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제 믿음은 개인적으로 제게 유효하며 산 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구체적인 믿음의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약2:17, 26).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는 분들, 또 바른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못한 분들은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형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주님께로 나아와 값없이 구원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나의 신앙 연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십니까? 왜 이 은혜를 거절하십니까?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그분 앞에 나아가 영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요1:12).





# 다시 태어남의 진정한 의미



## *Real Meaning of Being Born Again*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여러 창조물 중에서도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체의 발화기관(發話器官)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매우 독특하고 월등한 능력입니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말을 통해 타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원한 멸망의 길에 갇혀 있게 만드는 등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sup>1)</sup>

한국의 기독교인이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개역성경은 문장이 수려하고 간결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고풍스러운 웅장함은 읽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의 치명적 약점 중 하나가 성경의 진리를 나타내는 용어를 잘못 선택해서 그 잘못 선정된 말들로 인해 사람을 오히려 타락의 구렁이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 중에 하나가 ‘거듭나다’라는 동사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많이 들어 보았을 ‘거듭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듭나다: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이를 우리가 흔히 쓰는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면 ‘개혁하다’와 비슷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다.’의 예문을 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개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을 일류 검찰로 거듭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 아무개 군은 지금까지의 부랑아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거듭’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거듭: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이렇게 어떤 일을 되풀이하는 것을 표현할 때 ‘거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잘못된 말이 개역성경에 기록되다 보니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회에 나아와 자꾸 거듭나고 또 거듭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 이것은 2013년 11월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선포한 설교를 요약한 것이다.

이것을 한자어로는 ‘중생’(重生)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구원은 단 한 번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여러 번 거듭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이런 모호한 말을 전부 물리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로 구원의 진리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개혁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미국 3대 성인 잡지 중 하나의 발행인으로 유명한 래리 플린트(Larry Claxton Flynt)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세상에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그는 이후에도 변함없이 사악한 음란 잡지를 발행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NIV성경의 편집자 중 한 사람인 몰렌코트 박사(Virginia Mollencotte)는 자신이 거듭났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동성연애는 나의 일부분이 되어 왔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세상에 공개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절체절명의 모든 것이 걸린 ‘다시 태어남’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보다 더 잘 설명할 이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의 진정한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매(요3:1-2)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더위가 물러가고 산들바람이 불던 중동의 어느 날 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는 이제 갓 서른 살의 청년 랍비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많은 사람이 머리를 조아릴 만한 권세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이지만 자신만이 알고 있는 마음속의 의문과 갈증을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조용히 얘기 나눌 수 있는 한밤에 청년 랍비인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당시 유대인의 3대 당파 중 하나였던 바리새파는 그 명칭에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엄격한 종교인이었으며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현시대의 크리스천들은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위선자를 연상합니다. 물론 많은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이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위선자요,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중에는 성경에 명시된 율법 외에도 무려 600가지나 되는 전통들을 지키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한계에 대한 종교적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나타난 그의 영적 무지는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위치와 비교해 너무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권력가이자 종교적

열심과 지식으로는 최고의 경지에 있다는 바리새파의 핵심인물이었지만 구원에 대한 가장 기초적 지식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2:23) 급기야 자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들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걸은 그럴듯하지만, 갈등과 무지함 속에서 방황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요3:3)

니고데모의 입장에서조차 마치 동문서답과도 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회적 명망가였던 그의 고름 가득한 부패한 내면을 가르치는 날카로운 수술용 칼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의 출생이라는 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장중한 원리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첫 출생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탯줄을 끊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경험하는 둘째 출생 곧 다시 태어남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비한 영적 출생임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자로서 성경과 율법에 정통하다는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하늘의 관점이 아닌 육적 관점에서 이해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요3:4)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인 출생, 초자연적인 출생, 하늘로부터 임하는 출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비한 출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소경인 니고데모는 오히려 엉뚱하게도 눈에 보이는 육적 출생만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존경받는 학자들,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가, 엄청난 재력을 과시하는 재력가,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인기인, 삶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노련한 지혜자 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부와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로 착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고 집사요, 장로요, 심지어 목사라고 하며 자신이 몇 대째 믿음의 명문가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아끼지 않고 교회의 일이라면 두 팔 걷고 충성을 다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사람들 중에는 다시 태어난 현실을 경험하지 못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답답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비한 출생

곧, 다시 태어남에 대해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요3:5-7).

여기서 5절 ‘물에서 나고~’는 절대 물 침례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은 사람이면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궁 안에 차 있는 양수(羊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침례나 세례를 말하는 것이라면 구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물에서 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도 마찬가지로 되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출생 즉 육적 출생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출생 즉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영적 출생도 이처럼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진리로서 선포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두 부분이 결합하여 한 사람 안에서 작용할 때 비로소 사람이 다시 태어나며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출생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본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나 식성, 외모 등이 부모와 저절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둘째 출생을 현실로 경험하는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그의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옛 본성(옛사람)과 새 본성(새사람)이 공존하게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육적인 본성에 의해서 식성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육식을 좋아하면 자녀도 그렇게 되고 부모가 채식을 많이 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둘째 출생 즉 거룩하게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입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영적인 식성이 달라집니다. 과거 세상의 유희과 불경건한 오락을 즐기던 자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들을 찾고 누리며 즐기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걷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영적 식성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난 신자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점진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다.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벧전2:2-3).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첫째 육적 출생처럼 성장의 단계를 거칩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나중에 밥을 먹게 되듯이 다시 태어난 영적 아기들은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찾게 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하여 후에는 장성한 사람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기가 혼자 힘으로 출생하지 못하고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아기인 구원받은 신자도 혼자서는 둘째 출생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과거의 기억도 경험도 또한, 그것으로 인한 고민과 걱정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기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잊히고 아버지께서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방법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정 훈련 프로그램이나 혹은 특정 목사가 꼭 있어야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출생은 오직 모든 인간들의 조건을 초월해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삼형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요3:8).

바람이 불면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mystery)입니다. 실제 사람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신비이듯이 주님 안에서 영적 아기로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그 현실을 일일이 규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의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지식인 중 한사람인 니고데모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영적 소경이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많은 지식과 높은 명성을 소유하였으나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어 다시 태어난다는 영적 원리는 전혀 알지 못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요3:10)”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땅의 것들로 설명해도 진리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가엽게 여기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위해 유대인이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과 뱀뱀 사건’을 통해 다시 태어남과 구원의 진리를 이해시키시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3:14-15).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민수가 21장(4~9절)을 상기시키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불뱀에 물렸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라는 뱀에게 물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불뱀에게 물려 그 독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들은 동일한 뱀인 장대에 달린 뱀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죄로 퇴치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화하셨느니라(롬8: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뱀처럼 땅 위로 솟아오르신 뒤에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에 그분은 스스로 죄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죄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인간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모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3:15).

우리 모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로 그 순간 누구든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떨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히12:2).

우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더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의 옛 본성(옛사람)과 구원받은 이후에 생긴 새 본성(새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전에 아무렇지 않게 짓던 죄들을 점차로 멀리하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특징들을 잘 참고하십시오.

#### 구원받은 사람의 본성과 영적 식성(食性)의 변화

1.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구한다(벧전2:2-3).
2. 두 본성으로 인해 심한 갈등이 생긴다.
3.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해진다(롬6:1-2).
4.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랑한다(요일2:15-16; 5:4).
5.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믿음의 모임에 나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원한다(요일 3:14).
6.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혼을 사랑한다(롬9:1-3; 10:1; 고후5:14).

자! 이제 지금까지 읽은 모든 내용을 생각하며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 알게 된 진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인간적인 행위나 치적이나 공로나 어떤 좋은 장점이거나 강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고 영접하게 될 때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고후6:2).



# 추천 참고도서

##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윌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윌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    | 성경 위치    | 개역성경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
|----|----------|---|---|
| 1  | 마17:21   |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 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
| 2  | 마18:11   | (없음)                                    |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
| 3  | 마23:14   | (없음)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
| 4  | 막9:44    | (없음)                                    |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
| 5  | 막9:46    | (없음)                                    |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
| 6  | 막11:26   | (없음)                                    |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
| 7  | 막15:28   | (없음)                                    |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 되었더라.  |
| 8  | 눅17:36   | (없음)                                    |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
| 9  | 눅23:17   | (없음)                                    |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
| 10 | 행8:37    | (없음)                                    |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
| 11 | 행15:34   |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
| 12 | 행28:29   | (없음)                                    |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
| 13 | 롬16:24   | (없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 14 | 요일 5:7~8 |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8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8절을 둘로 나누어 8절 전반부를 7절에 넣음.) |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검색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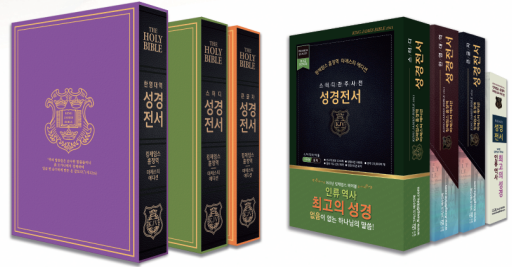


# 킹제임스 흠정역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마제스티에디션**  
한영대역 큰글자성경  
스터디바이블 작은성경



##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간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10년 전 처음 출간된 흠정역 성경은 이미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  
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검색

#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 킹제임스 흥정역

###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 5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키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 53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 54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0-54절)

